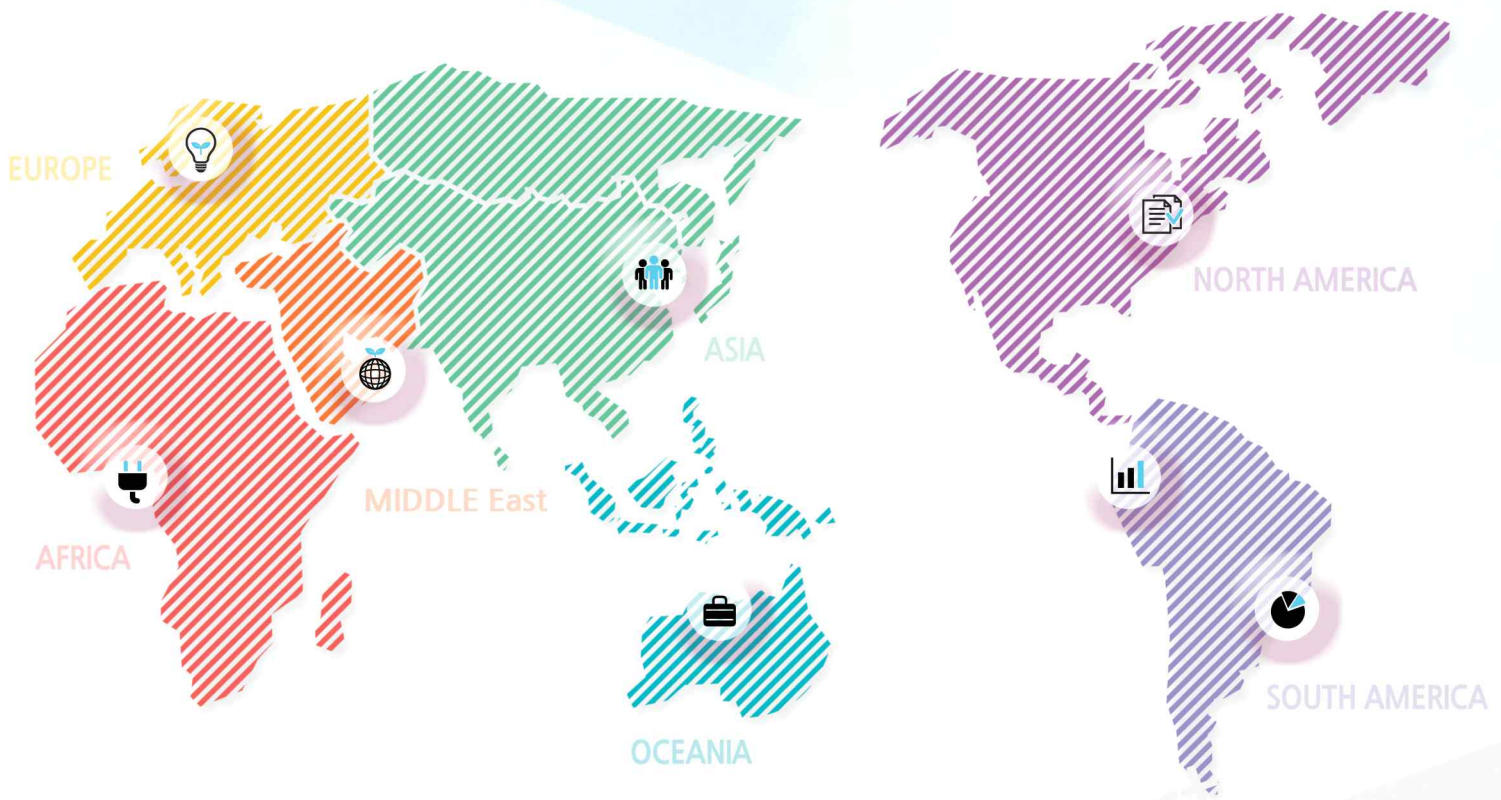




미국 금리인상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CONTENTS

목 차

요 약

I. 조사배경 1

- 1 | 1. 배경
- 2 | 2. 현지시장 반응

II. 금리인상이 주요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 3 | 1. 주력 수출국
- 8 | 2. 주요 신흥국

III. 종합평가 17

- 17 | 1. 현지진출기업 대응
- 19 | 2. 향후 전망

요 약

□ 미 연준, FOMC(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

- 기준금리를 現 0~0.25%에서 0.25%p 인상해 0.25~0.50%로 상향조정, '08년 12월부터 7년간 이어 오던 제로금리 시대 종료
- 실업률이 완전고용 수준인 5%까지 하락한데 이어 물가상승률도 아직 정책목표수준(2%)에 미달하나 개선요소 충분

□ 향후 금리인상은 미국의 경제여건을 토대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 금리인상의 시기보다는 속도를 강조하는 미 연준의 태도를 고려했을 경우, 과거 금리인상처럼 매 회의마다 금리인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주력시장) 법인형태와 대금결제통화, 경제상황에 따라 국가별 상이

- (진출기업) 중국 현지 생산·수출기업에게는 다소 긍정적이나 엔화, 유로화 약세에 따른 해당국 결제통화 변경 요구 증가
- (수출결제 다변화로 대응) 달러와 유로화 병행결제 기업은 해당 지역으로의 수출 비중 조절 즉, 달러 거래유리시 해당지역으로 수출 증대하는 등 결제 다변화를 통해 환변동에 따른 피해 축소 필요
- (공급선 다변화) 금리인상 영향은 제한적이나 달러강세에 따른 유로화 약세와 더불어 공급선 다변화 필요

□ (신흥시장) 브라질, 러시아 등 원자재 수출국 및 기초여건이 취약한 국가와 멕시코, 베트남, 인도 등 성장세가 견조한 국가로 차별화

- (취약국가) 달러화 강세에 따른 현지통화 약세 지속은 해당국 제품의 가격인상으로 이어져 기업수익성 하락이 불가피
- (기회시장) 미국 경기회복과 자동차기업의 진출 수요 증가(멕시코), 한국에서 원자재를 수입, 현지 내수 및 대미수출로 이어지는 시장(베트남), 견조한 경제성장세로 인한 수입수요(인도)

I

조사배경

《 기준금리 현황 》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08년 12월 이후 초저금리(0~0.25%)에서 7년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 0.25~0.50%로 상향조정

1. 배경

□ (동향) 미 연준, FOMC(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

- 기준금리를 現 0~0.25%에서 0.25%p 인상해 0.25~0.50%로 상향조정, '08년 12월부터 7년간 이어 오던 제로금리 시대 종료
- (배경)실업률이 완전고용 수준인 5%까지 하락한데 이어 물가상승률도 아직 정책목표수준(2%)에 미달하나 개선요소 충분
 - 고용시장이 연준의 양대 정책목표 중 하나인 완전고용 수준에 도달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현재 약 1.3%로 연준의 장기 정책목표인 2%에 못 미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 국제유가 하락 및 달러가치 상승으로 미국의 에너지가격 및 수입가격이 동반 하락하고 있지만, 향후 이러한 요소들이 완화되고 고용이 추가적으로 확대되며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

□ (전망) 향후 2년간 매년 1%p 내외정도의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

- 내년 말 적정 금리의 중간값은 1.25~1.5%로 나타났으며, '17년 말 적정 금리의 중간값은 2.25~2.5%로 평가(연준 위원 17명 점도표)

<연준위원 17명의 적정 기준금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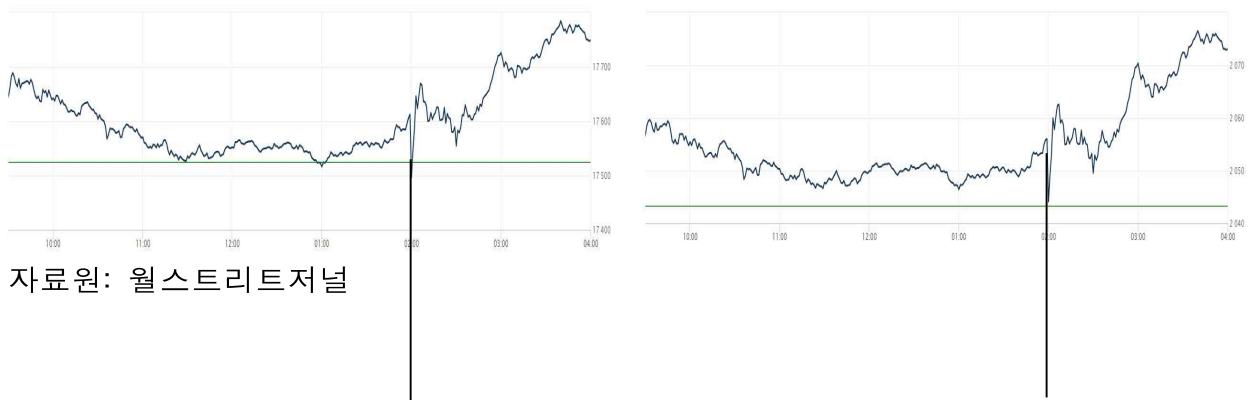
기준금리	0.75-1%	1-1.25%	1.25-1.5%	1.5-1.75%	2% 이상
2016년 말	4명	3명	7명	2명	1명
기준금리	1.75-2%	2-2.25%	2.25-2.5%	2.5-2.75%	3% 이상
2017년 말	5명	2명	4명	2명	3명

2. 현지 시장 반응

□ (주식)금리인상은 미국 주식시장에 불확실성 제거에 따른 호재로 인식

- 16일 다우존스, S&P500, 나스닥이 각각 1.28%, 1.45%, 1.52% 상승
 - 주식시장은 금리인상 발표전 관망세에서 연준의 미국경제에 대한 비교적 밝은 전망과 예상대로 낮은 인상폭에 반등하며 상승 마감

<12월 17일 다우존스(좌) 및 S&P500(우) 지수>



- 미국 단기 국채 수익률 5년반 만에 최고치 기록
 -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지만, 2년 만기 단기 국채 수익률은 1%선을 돌파하며 5년 만에 최고치 기록(12.16)

□ (환율) 주요 통화대비 달러가치는 상승

- 달러지수는 전일대비 0.15% 올랐으며,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이 각각 0.8, 0.6% 상승(12. 16, 현지시간 16시 기준)

□ (유가) 연준의 금리인상 발표 이후 국제유가 하락폭 확대

-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유(WTI) 및 브렌트유 가격이 각각 4.42%, 3.2% 하락하며 35.71달러와 38.07달러 기록(12. 16)

II

금리인상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조사방법

- 주력시장인 美, 中, 日, EU 등과 주요 신흥국을 포함한 총 17개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비즈니스 업계와의 인터뷰 실시('15.12.16)
- * 대상국가: 미국, 중국, 일본, EU, 브라질, 인도, 러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멕시코, 콜롬비아, 남아공, 터키, 대만
- 무역관 인터뷰 결과, 해당국가가 급격한 금융위기를 겪지 않는 국가의 경우 현지진출 생산법인의 경우나 달러로 결제하는 우리기업의 경우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

1. 주력 수출국

가. 미국

□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강세는 바이어의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와 금융비용 증가로 소비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상존

- 단기적으로 기업들은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인한 환율 혜택보다는 시장의 수요와 경쟁 상황이 수입량을 결정
- 지속적인 금리인상은 금리에 민감한 내구재 판매 감소로 인한 對미국 내구재 및 부품 등의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전망
 -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 특히 내구재(자동차, 가전제품, 가구 등) 판매시 제공하던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자 비용 부담 증가로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이 경우 미국의 내구재, 부품, 산업자재 등의 수입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

□ 달러화 강세 진행될 경우, 미국 수출 감소와 수입단가 하락 전망

- 미국 수출(10월) 감소가 두드러져 무역적자 폭 확대되고 아울러 수입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

- 금리 인상이 '16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달러화 가치가 더욱 상승해 이런 현상은 더욱 강화될 전망

※ 현지 비즈니스계 반응

- M사(전화 인터뷰 실시, 발전 설비 제조업체)
 - 전력업체들은 정부의 지원과 통제를 받지만 사기업이므로 금리인상은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
 - 최근 가스 가격이 매우 낮아 이미 수익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인상된다면 금융비용의 증가로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아울러 벤더들도 은행 대출을 받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12월 뿐 아니라 '16년도에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금융비용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
 - 그러나 은행이 금리 인상으로 이자 수입이 증가하면 대출 면에서 여유가 생겨 중소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하기가 다소 수월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V사(전화 인터뷰 실시, 지상사)
 - 금리 인상으로 원단이나 의류 수입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함.
 - 섬유제품 가격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수준이 낮아진 상태로 환율에 따른 인하 또는 인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
 - 아울러 날씨가 춥지 않아 겨울 의류의 판매가 부진해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내년엔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

나. 중국

- 풍부한 외환보유고와 낮은 금융시장 개방도로 미국 금리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으로 전망
- 기존 달러화에 연동한 환율관리 방식을 13개국 통화로 구성된 '통화바스켓'에 연동하는 등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

○ 중국 위안화 SDR 편입에 따라 중장기적인 자본 유입 가능

- 중국에서의 자본유출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중국내 및 한국내 중국 전문가들은 중장기적 위안화 강세 전망이 우세
- 단기적인 자본 유출 가능성이 있으나, 1) 지난해 말부터 6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로 시장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 2) SDR 편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국 자본에 대한 선호 증가 등의 원인
- 현재 고평가된 위안화가 1년 정도 평가절하 과정을 거친 후 중장기적 위안화 강세 및 자본 유입 가능성이 증가

□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위안화 환율가치 하락 가능성 주목

- 美금리 인상이 중국의 주가 폭락, 대규모 핫머니 유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
- 다만 최근 위안화 환율공시 체계 시장화로 위안화 추가 평가절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
- 중국 경기 경착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
 - 중국 경기둔화와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지만, 금리 인상이 중국 경기침체 및 금융시장 충격으로 직결될 가능성은 낮은 편
 - 중국의 높은 외환보유고 수준(3조 8천억 달러, '14년말 기준) 및 주식시장의 낮은 외국인 투자자 비중(1.6%), 금융시장 전반의 낮은 개방도 등으로 인해 美 금리 인상에 따른 타격은 제한적

※ 현지 비즈니스계 반응

- (자동차) 환율 인상은 호재이나,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침체시 악영향
 - 위안화 환율 인상시 중국 생산물량의 해외 수출에는 호재이나, 현재 중국 자동차 시장의 공급과잉 및 가격경쟁 격화 등이 더욱 큰 문제
 - 美 금리 인상이 중국의 경기 침체 및 둔화로 연결될 경우, 현재 포화 상태인 자동차 및 관련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전자) 업종 및 제품별 영향 상이

- S사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 후 해외로 수출하는 금액이 중국의 전체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 美금리인상→ 환율상승시 수출 측면에서는 호재(수출단가 하락)
- 하지만, 제품군별로 원자재 수입 비중 및 무역결제 수단 등이 상이, 세부적인 영향은 업종·제품군 별로 살펴볼 필요

다. 일본

□ 미국 금리인상이 일본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

-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 지연 추세라는 의견도 존재하나 완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 미국 긴축과 일본 완화, 양국의 상이한 정책 방향이 일본 경제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가능
- 신흥국 경기 침체 위험에 따른 부정적 효과 상쇄가 기대
- 한일 간 비즈니스 추진 중인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금리인상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
- 기업 직접 체감 지표인 환율에의 영향, 엔저 지속 정도로의 체감

□ 우리나라의 對日수출에는 긍·부정요인 혼재

- 엔화 약세에 힘입어 수출과 기업실적이 개선되는 등 자국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은 우리 수출여건에는 긍정적
- 반면 해외시장에서 엔화 약세에 따른 우리수출제품과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현지 비즈니스계 반응

○ A사 (통신모듈, 현지진출기업)

- 현재 일본 법인으로 진출해 있는 상황으로, 일본 법인이 미국 기업과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으나 가시화 단계는 아니기에 **미국과 직접 비즈니스에의 영향은 예측할 수 없음**

- 일본 기업과 거래의 경우, 현재 수출 대금 달러 결제 비율이 높은 상태인데 엔저 상황에서 바이어 측의 엔 기준 거래 요청이 많아진 상황
- 금리 인상에 따라 엔저 장기화 추세에 돌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엔 기준 거래 요청이 지속되리라 생각

○ **일본기업 C사(건설기계, 일본기업)**

- '16년 건설기계 세계 수요는 '15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판단
 -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는, 수요 증가 요인 보유 지역이 많지 않음
 - 미국의 경우는 '16년의 경우 '16년과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이번 금리 인상은 신흥국 통화 가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사 비즈니스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

라. EU

□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는 유럽시장 진출 국내기업의 결제수단에 따라 상반된 영향 예상

- 특히 유로화 결제시 유로화 약세압력과 기업 자체적인 유로화 수출시장의 영업 비중 축소로 대EU 수출둔화 예상
- 독일의 경우 대한민국 아웃소싱 유지 또는 확대전략을 통한 틈새 기회 포착 노력 필요

□ (수출전반) 우리나라 대EU 수출은 상반된 영향 예상

- (유로화 결제시) 현재 원화대비 유로화 환율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달러 강세 및 유로화 약세 기조 심화로 재차 수출채산성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대EU 수출시 부정적 영향 전망
- (달러 결제시) 달러 강세에 따른 수출 가격경쟁력 상승 효과 전망

※ 현지 비즈니스계 반응

- 주재상사 H/ 공작기계: 美 금리 인상 시 신흥국 타격이 증가할 전망이므로
주요 거래국인 대 터키 수출에 애로 예상
 - 동사는 국내 본사와 유로화로 결제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은 편
 - (유럽 권역 내 주요 거래국 수출 애로) 향후 미국 금리 인상시 신흥국 타격 증가 전망에 따라 주요 거래국 중 하나인 터키 등으로의 수출에 애로가 클 전망
 - 현재에도 터키는 리라(TRY) 가치 하락으로 수입이 매우 저조한 편이며, 정치적 불안까지 가세해 향후 대 터키 수출 감소로 영업에 지장 예상
- D사 구매담당자/자동차부품: 美 상용차 시장 내 소비 심리 위축 가능성 존재, 그러나 對韓 아웃소싱은 계획대로 진행 또는 확대 전망
 - 올해 들어 미국 내 판매는 '01년 이후 가장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특히, 벤츠와 스마트의 판매호조가 이어지면서 지난 7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한 31,250대를 판매
 - 금리인상의 여파로 특히 상용차 시장에서 소비심리가 위축될 가능성 예상
 - 그러나 금리인상이 이뤄지더라도 신차개발 및 구매를 위한 투자를 줄이지는 않을 것이며 현재 계획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기타지역에서의 소싱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며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

2. 주요 신흥국

가. BRICs 국가(중국제외)

- (브라질) 미국 금리인상은 추가적인 환율 하락 우려로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수출은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
- 소비위축, 수출부진, 정치사회 불안,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한 투자감소 및 헤알화 가치 하락 등에 따라 빠른 시일 내 회복이 어려운 상황

※ 현지 비즈니스계 반응

○ A사 (전자제품 업체)

- 브라질 현지 생산하는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의 많은 부분을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해 조달하고 있어 환율에 매우 민감한 편임.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 헤알화 가치가 더욱 하락하여 막대한 환차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당분간 경제상황을 관망하며 투자 감소 등 긴축 경영을 한다는 방침

□ (러시아) 미국 금리 인상은 러시아 주가 하락 등 일시적인 영향에 그쳐 러시아 경제에 단기간 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

- 현재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고, 국제유가 변동, 러시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 자국입장에서 보다 심각하고 직접적인 요소들이 많아 당장의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
- 국제유가에 밀접하게 연동되는 러시아 경제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달러가치의 상승이 국제유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큰 관건

※ 현지 비즈니스계 반응

○ H사 러시아법인 (국내 자동차부품)

- 미국 기준 금리가 인상된다면 러시아의 경우 루블화 약세가 지속될 것이고, 한국 본사의 수익성 악화에 따라 러시아 제품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부품 제조사 대부분이 가격을 인상하게 될 경우, 현지 수요가 위축되고 저가 제품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
-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회사의 경우 가격 경쟁력 상실에 따라 판매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

□ (인도) 미 금리인상으로 단기간의 시장혼란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양적완화 이후, 채권 및 자산시장에 많은 양의 외국인 투자가 유입 되었지만, 상당수가 인도시장의 잠재성을 바라보고 들어온 장기 투자자금
- '16년 인도 경제 성장세가 중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견실한 거시경제 지표로 인도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대부분의 인도 기업들은 인도 경제 성장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미 금리인상에 대한 인도 경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

※ 현지 비즈니스계 반응

- H사(발전) 동사는 한국을 비롯하여 전세계 많은 국가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임. 수입대금에 대한 환해지가 되어있지 않으나, 미 금리 인상으로 인한 환율 변동폭은 크지 않고 단발성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고 있음. 오히려, 내년 인도 경제 성장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으로 인도 내 외국 투자자본이 대거 유입되어 사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나. 아세안

□ (말레이시아) 현지 바이어 및 현지진출기업 등의 관심사항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환율 변동

- 현지 화폐단위인 링깃의 가치는 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 이래 17년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을 하였으나 현재 4.2 링깃 수준에서 안정화 추세
- 원유 및 석유가스 수출국인 말레이시아로서는 유가가 자국 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위안화에도 영향을 받는 상황

□ (태국) 미국 금리인상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임

- 금융·외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로 주가 하락,บาท 환율 상승 등이 나타날 것이나, 생산, 소비,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
-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태국 경기 회복세* 제약이 향후 우리나라의 대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 태국 GDP 성장률: (2012) 6.5% → (2013) 2.9% → (2014) 0.9% → (2015 전망) 2.7-2.9%
- 주로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태국이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태국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강제품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산 저가 제품을 막기 위하여 태국 정부가 반덤핑 등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음.
-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등도 수출 감소로 제조업 가동률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 반전이 쉽지 않을 전망

※ 현지 비즈니스계 반응

- (바이어) 미국 금리인상으로 บาท 환율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구매력이 감소할 전망이다.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B사는 향후 건설기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나, 환율로 인해 수입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실제 구매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

□ (인도네시아) 미국 금리인상으로 단기간의 시장혼란이 예상되나 향후 정부의 선제적 대응방안에 따라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종합대책('15.9~12월),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15.8월) 등을 연달아 발표, 불안정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 중
- 또한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이탈에 대한 불안정성이 이미 시장지표에 선반영 된바 단기적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

- 이에 따라 추가 자금 유출에도 인도네시아 경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지 않을 수 있으나, 위기에 대비하여 對인니수출 중 또는 계획 중인 한국기업들은 주기적인 경제 지표 및 정보 모니터링 필요

※ 현지 비즈니스계 반응

- (IT관련, P사) 미국 기준금리 인상시, 수입부문에 있어 일부 어려움이 예상하나, 달러화 거래를 하지 않는 거래에 있어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어, 기업차원에서 적절히 관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필리핀) 금리 인상은 폐소 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며 필리핀 경제에도 여러 모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긍정적 영향) 자국화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가격경쟁력 강화가 예상되며 필리핀 해외 근로자(Overseas Filipino Workers: OFW)의 송금액 가치 상승*에 따른 일부 계층 구매력 확대

* 예) OFW 1인이 월 1천 달러를 송금하였을 경우 2015년 중반까지는 PHP 45,000이었으나 현재 PHP 47,140로 송금액 가치가 증가

** 2015년 3분기까지 OFW는 본국에 184억 달러를 송금하여 전년 동기 대비 4.1% 송금액 또한 증가

- (부정적 영향) 수입원자재 등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OFW와 상관없는 계층의 구매력 약화 등을 꼽을 수 있음.

※ 현지 비즈니스계 반응

- (기진출기업) 필리핀 진출 종합무역상사를 비롯한 우리 기업들에 따르면, 미국금리인상 소식은 꾸준히 소식이 전해져 온 이유로 대비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함.

- 대기업의 경우, 한국에서 수입한 원부자재 및 제품 재고 확보에 꾸준히 신경을 써 왔기 때문에 현재 폐소가치 하락의 영향은 특별히 없다고 함.

- (바이어) 인터뷰에 응한 현지 바이어들은 달러 대비 폐소화 환율이 다소 상승했다고 해서 수입을 축소할 생각은 없다는 반응

- 그러나 미국발 금리인상이 현실화되고 연말 기준 1 달러 당 50 페소까지 환율이 치솟을 경우에는 수입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
- 또한 일부 바이어는 수출국 기업에 수출 단가를 낮춰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함.

□ (베트남) 현지진출기업은 한국, 중국 등에서 원자재를 수입·가공, 미국, 유럽 등 해외시장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으로, 달러 강세로 영향은 제한적이거나 진출기업의 수익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 발생

- 결국, 베트남은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본 유출 등으로 인한 거시적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타 경쟁국의 환율 절하 폭과 베트남 동화가 절하 폭이 얼마나 같이 움직이는지가 관건
- 베트남 내수 및 미국 경기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도 이러한 호조세는 지속될 전망

※현지 비즈니스계 반응

- N사(현지진출기업)
 - 한국 원화 가치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 동 업체는 달러로 결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다른 대부분 섬유업체들의 경우도 달러 결제를 함.
 - 일부 원화 결제 하는 업체도 있으므로 그 경우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국내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업체도 타격이 있을 수 있음. 다만 업계 전반으로 보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외화 채무가 많은 곳의 경우 이자율 상승으로 부담이 증대되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함.
- * 의류 생산기업들은 대부분 원청기업(예를 들어, 겍, 나이키) 등과 달러로 계약이 맺어져 있어, 달러강세로 인한 피해보다는 이익을 예상하는 분위기임.

다. 기타 주요국

□ (멕시코)미국경기 회복에 따라 멕시코 경제는 최근 견고한 경제 성장세를 유지, 심각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멕시코 중앙은행)

- 단기적으로 금리인상으로 달러강세를 가져오기 때문에, 수입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수출가격은 하락하는 효과도 발생
- 자동차는 브라질, 중국 등 주요수입국의 경제둔화로 인해 수입이 감소된 반면 미국 경제성장으로 멕시코 자동차 등 제조업분야 수출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

※ 현지 비즈니스계 반응

◇ 현지 가전업체 인터뷰

-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입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불안 요인이 있지만 가전제품 판매율은 긍정적
- S사의 경우 올해 판매 실적은 전년과 비슷하게 기록 중이며 특히 생산의 70%를 미국으로 수출 하였으며, 내년에도 공장정비 및 기계도입 등 2천만 달러의 투자 계획

◇ 현지 IT 업체 인터뷰

- 하드웨어 분야 경우 원자재 수입에 의존
 - 금리인상 전망으로 환율인상이 지속되어, 77% 의 관련 분야 기업들은 비용상승을 상쇄하기 위해 판매가를 인상 예정이며, 투자도 감소
- 기술서비스 분야 경우 달러 베이스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환율상승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콜롬비아) 수입시장, 성장 둔화 불가피

- 환율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콜롬비아 수입시장의 획기적 수입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특히 필수 수입품목을 제외한 소비재의 경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당분간 수요 감소가 지속 예상

- 단기적으로 우리기업의 對 콜롬비아 주 수출 품목인 자동차, 전자제품, IT 제품 등의 수입 감소가 예상

※ 현지 비즈니스계 반응

- (우리기업) 수입수요 감소, 민간 프로젝트 발주 둔화 등으로 고전 전망
 - 미 금리 인상의 여파로 현지 산업계 수입수요 감소, 내수시장 둔화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전자/IT 기업의 경우 예상치 못한 환율 상승으로 연중 제품가격 조정을 완료하였으나 미국 금리인상이 환율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시장 흐름에 따른 판매전략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
 - 종합상사의 경우 기존 거래선의 수입 보류로 수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미 일부 거래선과 수출대금 관련 미납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금리인상이 상황 심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건설플랜트 분야의 경우 최근 지방선거 완료 후 지자체별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외부 악재로 인한 자금부담 가중이 콜롬비아 프로젝트 시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

□ (남아공)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의 경기둔화로 인한 수출부진 및 원자재 가격 하락, 정치 불안,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투자 자금 이탈 등 대내외 요인으로 경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

- 투자 자금 추가 이탈로 남아공 경기 둔화 추세 둔화 우려
 -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란드화의 평가절하는 FDI의 유입을 지연시켜 남아공 경제의 저성장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
 - 미국 금리 인상으로 외화 유출 및 환율하락 심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 남아공 수출은 당분간 고전할 것으로 전망

※ 현지 비즈니스계 반응

- (한국진출기업) 환율 역대 최저치 갱신 등으로 가격 경쟁력 급상실
 - 대부분의 기업이 긴축 경영 등 비용 절감 대책 고심중
 - 남아공 정부의 추가 금리인상 검토 등으로 인해 기투자 진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

□ (터키) 미국 금리인상은 터키 해외수입제품 주문연기 추세 확대 우려

- 터키 수입업체는 최종공급처에 대한 가격을 맞출수 없어 제품주문을 연기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같은 주문 연기가 향후로 불가피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
- 특히 환율불안은 터키 경제성장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될 것으로 예상

□ (대만) 미국 금리 인상은 여러 가지 악재 중 하나이며 인상폭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

- 대만 정부는 美 금리 인상을 포함한 각종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및 내수경기 진흥 정책을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
- 달러 강세 장기화에 따른 환율 리스크로 바이어의 가격 조정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격 정책에 신중한 고려를 요함.

※ 현지 비즈니스계 반응

- (자동차 제조업) China Motor社(대만 3대 자동차 제조사) 관계자 인터뷰
 - 직접적 영향 크지 않음. 다만, 금리 인상으로 일본 또는 중국이 큰 타격을 입을 경우 대만에도 간접 영향 미칠 것(대만 자동차 산업은 中·日과 연동성이 높기 때문)
 -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는 위협 요인이 될 것이나, 업계 자체적으로 사전에 환율 리스크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극복 가능할 것

III

종합평가

1. 현지진출 기업 대응

- (총괄) 美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는 해당국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 격화 예상
 - (교역구조) 상품수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한국, 중국) 등은 교역조건 개선과 미국 수요회복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베트남, 인도 등도 견조한 편
 - 반면 원자재 수출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러시아, 우크라이나, 남아공, 브라질) 등은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위기 취약성이 부각될 가능성
 - (진출형태) 해당국 통화가치 하락은 진출기업 법인형태에 따라 상이
 - 생산법인은 현지통화 약세→수출경쟁력 향상→매출확대, 판매법인은 달러로 구매 대금 결제, 현지통화로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기업은 불리
- (주력시장) 법인형태와 대금결제통화, 경제상황에 따라 국가별 상이
 - (진출기업) 중국 현지 생산·수출기업에게는 다소 긍정적이나 엔화, 유로화 약세에 따른 해당국 결제통화 변경 요구 증가
 - * (中) 중국에서 생산 후 해외로 수출하는 측면에서는 수출단가 하락이 호재이나, 제품별로 원자재 수입비중 및 무역결제 수단이 상이하므로 세부 업종·제품별로 차이(S사)
 -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 생산·해외수출기업은 호재이나, 중국 경기침체나 둔화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부정적일수도 있음(H사).
 - * (日) 일본기업과 수출대금 달러결제 비중에서 바이어 측의 달러화 강세에 따른 엔화거래 요청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A사)
 - * (EU): 우리나라 對EU수출기업은 유로화 결제 시에는 수출채산성 부담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달러 결제 시에는 수출가격 경쟁력 상승효과 전망
 - (수출결제 다변화로 대응) 달러와 유로화 병행결제 기업은 해당 지역으로의 수출 비중 조절 즉, 달러 거래유리시 해당지역으로 수출 증대하는 등 결제 다변화를 통해 환변동에 따른 피해 축소 필요
 - (공급선 다변화) 금리인상 영향은 제한적이나 달러강세에 따른 유로화

약세와 더불어 공급선 다변화 필요

- * 국내 생산 가공 기업이 대미 수입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제3국으로의 공급선 전환 방안 검토 필요

□ (신흥시장) 브라질, 러시아 등 원자재 수출국 및 기초여건이 취약한 국가와 멕시코, 베트남, 인도 등 성장세가 견조한 국가로 차별화

○ (취약국가) 달러화 강세에 따른 현지통화 약세 지속은 해당국 제품의 가격인상으로 이어져 기업수익성 하락이 불가피

- * (남아공): 한국기업들은 환율 역대 최저치 갱신 등으로 가격 경쟁력 급상실 등으로 긴축 경영 등 비용 절감 대책 고심 중이며 일부기업은 철수를 계획함. 남아공 정부의 추가 금리인상 검토 등으로 인해 기투자 진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됨.
- * (브라질): 현지생산에 사용되는 부품의 대부분을 글로벌 아웃 소싱을 통해 조달하고 있어 환율에 매우 민감한 편임. 美 금리인상은 헤알화 가치를 더욱 하락하여 막대한 환차손 발생 전망(S사)
- * (필리핀): 현지 바이어들이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수입물량을 축소 또는 유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이며, 일부기업의 경우 한국산대신 중국제품을 먼저 수입·유통하겠다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인프라 등 정부주도 각종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시장수요 발생 기대

○ (기회시장) 미국 경기회복과 글로벌 자동차기업의 진출 수요 증가(멕시코), 한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현지 내수 및 대미수출로 이어지는 시장(베트남), 견조한 경제성장세로 인한 수입수요(인도)

- * (멕시코) GM, 폭스바겐, 크라이슬러 등은 멕시코 현지 생산 공장의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BMW, 다임러슬러, 닛산 등이 추가로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함. K사 생산법인 공장도 '16년 양산을 목표로 건설, 관련 협력업체들의 멕시코 진출은 자동차부품 수입증가 예상
- * (베트남) 일부 원화를 결제하는 기업이 있지만, 대부분의 의류생산기업들은 대부분 원청기업(예: 겍, 나이키) 등과 달러계약이므로, 이익증가 기대(N사)
- * (인도) 미 금리 인상으로 인한 환율 변동폭은 크지 않고 단발성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고 있음. 오히려, '16년 인도 경제 성장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으로 인도 내 외국 투자자본이 대거 유입되어 사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H사)

2. 향후 전망

-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대내외 금리차 축소, 달러화 강세 등의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파급효과 발생
 - 대내외 금리차 축소는 신흥국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금 규모가 감소하거나 국외로 유출 우려
 -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원자재 수출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출감소, 경상 및 재정적자 확대 등 경기불안 확대요인 부상
- 美 금리인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기초경제여건이 약한 신흥국 등을 중심으로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이 발생될 것을 우려
 - '90년대 중반 연준이 전격적으로 단행한 금리인상('94.2)은 멕시코 등 신흥국 위기의 도화선이 되었으며, 이후 '97년 아시아 신흥국 등의 외환위기 촉발
 - '00년대 중반의 금리인상도 결국에는 '08년 미국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로 이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하나의 원인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90년대 이후)>

시기	인상시작(날짜)	인상종료(날짜)	금리인상폭(횟수)
1994년	3.00%('94.2)	6.00%('95.2)	3.00%p(총 7회)
1999년	5.00%('99.6)	6.50%('00.5)	1.50%p(총 6회)
2004년	1.00%('04.6)	5.25%('06.6)	4.25%p(총 17회)

자료: FRB(2015)

- 향후 금리인상은 미국의 경제여건을 토대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 금리인상의 시기보다는 속도를 강조하는 미 연준의 태도를 고려했을 경우, 과거 금리인상처럼 매 회의마다 금리인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 '16년말 기준 금리 중간값 예상치(FOMC 점도표)는 지난 9월에 비해 하향조정, 통화정책 방향을 시장충격 최소화에 속도조절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이번 금리인상은 긴축보다는 정책신뢰성 유지를 위한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의미

□ 금리인상은 달러화 강세를 유발, 주요국 통화가치 약세 지속 전망

- 美는 기준 금리인상을 통한 출구전략에 돌입한 반면, 中, 日, EU는 '16년에도 양적완화 정책 지속 예상
 - * 중국은 작년 11월 이후 기준금리를 6차례 인하, 일본은 최근(9.15)에도 양적완화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 ECB도 양적완화정책을 '17년 3월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 발표(12.3)
- 달러화 강세, 엔화 및 유로화 약세 등을 고려하면, 향후 원/달러 환율은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금리인상은 대미수출에는 긍정적, 신흥국과 산유국수출은 부정적이며, 국가별 경제상황이나 진출기업형태에 따라서는 차별적

- (시장전반) G2리스크(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 저유가속에서 특히 남아공, 브라질 등 자원수출국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 부정적 영향국가: 남아공, 터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러시아, 콜롬비아
- (기회시장) 미국 경기회복에 따른 기대(멕시코, 베트남), 해당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로 인한 수입수요가 증가(인도)할 것으로 기대
 - 멕시코, 베트남 등은 미국 경기회복과 우리기업의 투자진출확대로 인한 수요증가가 기대되는 시장
 - 인도는 '16년 경제성장률(7.5%)이 중국 성장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Modi 정부의 적극적 산업정책과 외환보유고 등 기초경제여건이 양호
- (진출형태) 현지생산법인은 현지화 약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향상이 예상되는 반면, 판매법인은 불리할 것으로 예상
 - * 무역관 인터뷰 결과, 해당국가가 급격한 금융위기를 겪지 않는 국가의 경우 현지진출 생산법인의 경우나 달러로 결제하는 우리기업의 경우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

첨부	미국 금리인상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국별)
구분	영향
미국	· 경기회복,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수입수요 확대 기대 ·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증가로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 우려
중국	· 풍족한 외환보유고(U\$3조 4,000억), 낮은 외국인 주식투자 비중(1.6%), 금융시장의 낮은 개방도 등으로 美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 제한적 · 美 금리인상에 대응한 위안화 평가절하 추진으로 우리제품 경쟁력 약화 우려
일본	· 양적완화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美 금리인상으로 수출/기업실적 한층 개선 · 美 금리인상으로 엔저 심화 지속되면서 우리 제품과의 경쟁심화 우려
유럽	· 달러 강세, 유가 하락으로 수출 및 내수 경기 완만한 회복세 지속 · 유로화 평가절하 가속화 되면서 해외시장에서 우리제품과 경쟁 심화
브라질	· 투자자금 이탈에 따른 헤알화 가치 폭락, 경기침체 가속화 우려 · 환율급등에 따른 수입비용 증가로 환차손 확대, 수입시장 위축 우려
러시아	· 자금이탈, 국제유가 하락, 루블화 가치 급락으로 경기침체 심화 우려 · 루블화 약세 지속으로 바이어 구매력 감소 및 우리제품 가격경쟁력 약화
콜롬비아	·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및 국제유가 하락으로 경기 악화 · 페소화 가치 하락으로 수입수요 하락 우려
터키	· 외국자본 유출 확대, 리라화 가치 폭락으로 경기위축 우려 심화 · 환율급등으로 현지 바이어들의 구매력 약화 우려
필리핀	· 페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경기불안 우려 있으나, 영향은 제한적 · 현지 바이어들의 수출단가 인하 요구가 늘어나면서 수출 감소세 확대 우려
말레이시아	· 저유가 지속, 링깃화 가치 폭락, 위안화 평가절하 등으로 경기부진 우려 · 환율급등으로 바이어들의 수입비용 증가하면서 對韓 수입수요도 저하
남아공	· 수출부진, 투자자금 이탈, 경제정책 불안정성 등으로 란드화 가치 폭락 · 현지 환율 급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크게 약화
태국	· 외환보유고(U\$1,580억)는 충분하나,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우려 확산 · 환율변동성 확대로 현지 바이어들의 구매력 떨어지면서 수입수요 감소 우려
대만	· 통화가치 하락, 對新홍국 수출부진으로 타격 예상되나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환율상승으로 제품 가격 상향 조정 시 우리기업 수익성 약화 우려
인도	· 자금이탈 가능성 낮고 경제의 펀드멘털 견고하여 美 금리인상 영향 미미 · '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7.5%, 최초로 중국보다 높은 성장률 보일 전망
베트남	·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15년 6.5%, '16년 6.6%), 美 금리인상 영향 제한적 · 우리기업의 베트남 현지생산 확대로 對베트남 수출 지속 확대 예상
멕시코	· 미국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멕시코 경기 및 수입시장 회복세 지속 · 브라질 등 중남미 주요국 경기침체로 對멕시코 외국인투자 지속 확대 전망
인도네시아	· 최근 경제위기 심화로 대외리스크 취약, 대규모 외국인자금유출 예상 · 경기부양 종합대책,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경제극복 정책 추진



작성자

◆ 글로벌전략지원단	고희채
◆ 통상전략팀	고일훈
◆ 뉴욕무역관	장용훈, 임소현
◆ 베이징무역관	정진우
◆ 도쿄무역관	이세경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김영신
◆ 마닐라무역관	현성룡
◆ 멕시코시티무역관	민희정
◆ 방콕무역관	박현성
◆ 보고타무역관	성기주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권의진
◆ 호치민무역관	이동현
◆ 뉴델리무역관	임성식, 김덕영
◆ 자카르타무역관	신경련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연승환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이스탄불무역관	권오룡



Global Market Report 15-055

미국 금리인상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발 행 인 | 김재홍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5년 1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Global Market Report

www.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